

#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 Focused on Q Methodology -

Jong Hwan Eun\*\*, Si Young Lee\*\*\*, Eun Hyung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Gwanak-gu, Seoul, Korea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people's subjective cognition on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We seek to analyze the subjective cognition by using Q methodology; we compose a sample of statements for a Q sort based on news articles and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create P-samples of thirty-seven people according to Thomson's Schemata. As a result, the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pragmatic liberalist, jingoistic realist, nationalistic liberalist, cold-war realist and optimistic standpatter. These types show various levels of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their responses to the nuclear problem varies according to their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eference for countermeasures. In policy decision-mak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population's cognition and satisfying them can obtain more support from the population and thus enhance policy effects.

**Key word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ubjective cognition, Q methodology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BKPlus사업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The 1st author. E-mail. zert94@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E-mail. luxmea84@naver.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r. 16, 2015 / Revised: Mar. 31, 2015 / Accepted: Apr. 20, 201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37명의 P 샘플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①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②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③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④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⑤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인식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시켜 나갈 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효과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공론의 장을 통한 담론적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핵위협, 주관적 인식, Q 방법론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객관적인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누구는 위기로 인식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인식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느끼는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분석방법이 Q방법론이다(김순은, 2010).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협은 남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안보에 대한 현실주의 해석은 주변국들의 객관적인 힘의 분포 변화보다는 힘의 변화인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김재천·조용규, 2006: 175). 즉 위협에 대한 인식(threat perception)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외교나 안보정책을 낳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는 특정 위협요소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준거 틀로 주관적 인식을 활용해 왔다.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국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국가 내에도 개인의 입장에 따라 위협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서로 다르다. 특히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한스 모겐소(H. J. Morgenthau)는 성공적인 외교를 방해하는 현대 의회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대중성(publicity), 다수결(majority decision), 그리고 분절성(fragmentation)을 들었다. 대중성으로 인해 정보가 누출되어 현재 상황이나 전략이 드러나는 등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제동 장치가 없는 다수결로 인해 현명하지 못한 다수에 의한 정책결정이 쉬워지며, 분절성으로 인해 국제관계의 연동성을 고려하지 못해 잘못된 외교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Morgenthau, 1985). 오늘날 민주주의의 체제 내에서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결정은 이러한 해악들로부터 잘못된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안보와 그 위협요인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안보정책을 결정한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중대사건인 ‘북한 핵위협’에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013년 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민의 83%가 북한 핵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sup>1)</sup> 비슷한 시점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9.9%가 북한 핵실험을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대답하였다(김지윤 외, 2013: 2). 그리고 한국갤럽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철수 및 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철수를 공고했을 때에도 우리 국민의 67%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이 안보불감증에 걸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이라는 안보에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여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고, 나아가 Q방법론을 활용한 인식 유형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후 실제 분석결과를 통해 북한 핵위협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유형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북한 핵위협에 관한 선행연구

### 1. 북한의 핵위협의 실체와 대응

북한의 핵위협은 1989년 9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촬영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992년 1월 이후 IAEA 사찰이 이루어졌으나,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시 핵문제가 악화되었다. 이후 1994년 전쟁위기에 까지 치달았지만,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설치되고 다자기구의 형태로 운영되어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3년 1월 다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5년 9·19선언이 채택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행하였다. 2009년 4월과 5월에 이르러는 로켓발사와 2차

1)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갤럽 미 국민 83%, 북핵 중대위협으로 인식”.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30일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를 선언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여 10,000km 이상의 비행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하는 핵무기나 수소폭탄과 결합된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s)의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점점 실체화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안보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어떤 수준으로 제작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서도 북한이 42-46kg의 플루토늄으로 7-11개의 핵무기를 제작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2009년, 2013년의 핵실험에서 다소 간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체적으로 10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박휘락, 2013a 재인용).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2006년의 1차 핵실험 규모는 1kt 이하, 2009년 2차 핵실험은 4kt의 핵폭발장치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多種化)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자평하였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평가로는 TNT 6~7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양무진, 2013).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능력 측면에서 “비배치 핵보유국”(undeployed 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볼 수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다(박휘락, 2013a).

실제로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 수준의 핵폭탄(20kt)이 용산 가죽공원에 투하되는 상황의 피해를 예측한 연구 및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기사에 따르면 20kt의 지표면 핵폭발시 전자기파, 충격파, 방사선,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만4천412명에 달하고,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78만4천585명에 달하며,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90%인 부상자를 포함하면 총 274만 88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낙진은 풍향에 따라 날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떨어진다. 낙진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원자병을 앓거나 수년 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법은 다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 더 강력한 응징보복을 예상할 수 있게 하여 공격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북한의 공격가능성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그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공격하여 파괴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법은 취사선택

2) 뉴스한국, 2013년 3월 15일, “50kt 핵폭탄 서울 용산 투하시 200만명 사망”.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다(김성범, 2007). 이와 같은 군사적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이면에는 핵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공중에서 파괴하거나 핵무기 발사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는 최첨단 정보기술이 부족한 남한의 입장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 높아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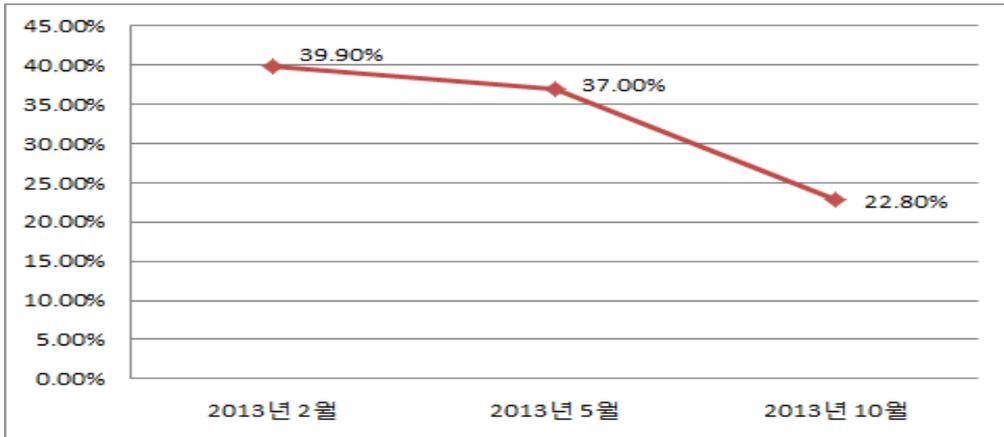
다음으로 외교적 대응방안은 해결을 주도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남한 주도의 외교협상 방안, 둘째는 미국 주도의 협상방안, 셋째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협상 방안이다.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협상 방안은 6자회담 내지는 4자회담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북한 핵위협을 해결하는 외교협상 전략을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즉,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던 방법이다. 단,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핵포기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우선 핵포기를 하게 만들고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조성렬, 2014). 둘째는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북한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인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 2. 북한 핵위협 인식의 중요성과 동향

북한 핵위협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여론은 당시의 정책의 방향과 결정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여론의 감정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결정되고 정책 내용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둘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즉, 국방안보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국민이 국방 안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국방안보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국민의 인식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교나 국방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이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한 국민주권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 인식의 내용과 수준은 정책 결정과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자료: 김지윤 외(2013: 2)

〈그림 1〉 북한 핵실험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아산 데일리 폴(The Asan Daily Poll)’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사회요인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월에는 39.9%로 매우 높았으나, 2013년 5월 37.0%, 그리고 2013년 10월에는 22.8%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았으나 개선공단의 재가동과 남북한의 대결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윤 외, 2013: 2).

한편 한국갤럽이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직후인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북한 핵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 ‘약간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나타나 전체 76%가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한국갤럽, 2013). 그러나 2014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위협적’이 39%, ‘약간 위협적’이 36%로 나타나 전체 74%가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위협인식의 강도는 다소 낮아졌다(한국갤럽, 2014).

여론조사기관들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조사결과는 북한 3차 핵실험이라는 특정 사건의 발생 직후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의 위협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3. 북한 핵위협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다룬 연구들과 개인차원의 인식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가차원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국가차원의 연구들을 다시 나누어보면, 일국 차원의 분석과 여러 국가들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국차원의 연구들로 김연수(2003)는 북핵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북핵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생존전략이며 북미관계 정상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 전략은 협상의지 속에서 '의도적 위기조절' 행태를 시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재천·조용규(2006)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차이를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시각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형중(2006)은 북한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심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북한 핵의 비확산이 미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통한 봉쇄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성훈(2012)은 북한의 핵위협을 크게 정치·심리적 위협과 군사적 위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으로 적극적 억지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북한 핵위협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정치·심리적 위협에는 정치·심리적 압박, 한국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과 선제공격 동기 유발이 있으며, 군사적 위협에는 전면전, 국지전, 군사적인 운반수단에 의한 핵위협, 평시 남한 내 반입을 통한 핵위협 현실화 등이 있다고 하였다. 박휘락(2013b)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제타격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국가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경호(2003)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시행정부는 신안보전략의 차원에서 핵에 대한 매우 공세적인 전략, 반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우위를 통한 Pax Americana의 추구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핵 핵개발 반대, 평화적 해결과 한미일 공조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응전략으로 한미간의 전략적 합의와 다자협력기구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고유환(2013)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기준으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분석하여 동북아 질서 변화를 예측하였다.

개인차원의 북한 핵위협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먼저 박영호(2013)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의 정부와 정치권 및 일반국민의 위협 인식을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전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강경하게 변화하였으며, 대응방안 역시 이전과는 달리 '독자적 핵개발론', '전술핵 재도입론', '핵우산 강화론', '강화된 확장 억지론', '선제 핵타격론', '북한체제 변화론' 등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한 김덕준(2004)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31개의 Q 진술문을 교수, 행정관료, 시민단체 간부와 대학생 등 31명의 P샘플에 적용하여 통일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인식유형으로는 '점증주의 입장의 보수우익', '교류협력 지향의 통일지상주의', '완화된 보수우익', '북한체제 용인의 점증주의' 통일관 등이다. 그리고 북한 핵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이순모(2013)는 35개의 Q 진술문을 21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적용해 '무반응형', '공포 반응형', '심리적 불안형', '냉소적 무시형'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 북한 핵위협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단위	연구방법	주요내용	비고
김연수 (2003)	국가	문헌연구	북한 핵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양상의 변화 분석	직접
박형중 (2006)	국가	문헌연구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방안	직접
김재찬·조 용규 (2006)	국가	문헌연구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이라크 및 대북한 외교정책의 차이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원	직접
전성훈 (2012)	국가	문헌연구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대응방향	직접
박휘락 (2013)	국가	문헌연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성 있는 대안 분석	직접
고유환 (2013)	국가	행위자-네트 워크이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고 동북아 질서 변화 예측	직접
김경호 (2003)	개인	문헌연구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 부시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제시	직접
박영호 (2013)	개인	언론보도 내용분석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정치권 및 일반국민의 인식과 대응이 강경하게 변화	직접
김덕준 (2004)	개인	Q 방법론	북한 핵위협 해결을 포함한 통일관을 4가지로 분류	간접
이순모 (2013)	개인	Q 방법론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인식을 4가지로 분류	간접

#### 4. 선행연구의 검토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핵위협은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문제의 복합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북한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공존과 통일추구라는 긴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핵문제는 평화적 체제유지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핵무기 그 자체로 심각한 위협이다. 즉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 내지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위협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 내지는 평화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보았을 때 힘에 의한 해결 방식과 협상과 외교적 타협을 통한 해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의 이면에는 민주사회에서의 담론적 정책결정을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고 이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이상의 점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뿐만 아니라 대중과 여론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 중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고 분석하였다. 반면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는 공공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 언론 등에서 조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일반국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려 하였으나, 통일이나 전쟁위협이라는 상위 주제를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북한 핵위협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및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그 유형의 특성들과 다른 인식유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정책적 측면에서 유형화된 사람들의 인식을 토대로 보다 수용가능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Q 방법론의 의의와 특징

Q 방법론은 인간의 관점, 의견, 신념, 태도 등의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연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Brown, 1993). Q 방법론은 ‘외부로부터의 설명’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강조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인간 개개인의 서로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추구한다(김홍규·김우룡, 1998).

Q 방법론은 경험주의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현상학 및 해석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석학이나 현상학에서 말하는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해석과는 달리 집합(concours)이론과 요인분석을 통해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김현수·원유미, 2000: 9). 즉, Q 방법론은 현상을 연구자(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행위자들의 관점을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Brown, 1980).

Q 방법론의 활용분야는 언론학, 광고홍보학, 마케팅, 심리학, 간호학, 의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0여개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김홍규, 2008; 김분한 외, 2010: 20). 정치학 분야에서는 Brown(1980)의 저서 「Political Subjectivity」로 대표되는 바와 같

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여론이나 태도, 정치이념,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책, 공공관리와 행정, 정치철학과 가치 등 다양한 분야가 Q 방법론의 적용분야로 다루어져 왔다(김홍규, 2003)<sup>3)</sup>.

Q 방법론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Q 방법론의 연구절차는 크게 Q 표본(Q 진술문)의 구성, P 샘플의 선정, Q 분석으로 구성된다. Q 표본(Q 진술문)은 ‘의견(opinion)’, 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진술로 구성된다. 이 진술문 내용의 출처는 개인들에 대한 인터뷰,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 개인의 주관적 진술과 학술연구에 근거한 주장과 언론매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인간상황을 왜곡하지 않게 설계된 문항이다(Brown, 1980; 김순은, 2007).

P 샘플의 선정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sup>4)</sup> 선정된 P 샘플을 대상으로 Q 분류를 시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설문에 있어 개인이 지닌 Q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정된 P 샘플은 Q 분류를 할 때 Q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서열화함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07; 김홍규, 2008).

마지막으로 Q 분석은 위와 같이 수집된 응답 값을 토대로 분석한다. 분석은 P 표본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 요인분석을 통해 응답자들 간의 응답 값의 유사성을 토대로 인식유형이 분류되는 것이다.

## 2. 본 연구의 절차

Q 분석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인 Q 표본설계는 선행연구 및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Q 표본(Q-sample)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P 표본을 설계하는 것인데, 이는 Q 설문을 수행할 응답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다. 3단계는 P 표본을 대상으로 Q 표본을 주어 Q 분류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에서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 1) Q 표본의 선정

Q 표본은 연구하고자 하는 차원의 중요한 측면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수·원유미, 2000: 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한 Q 표본을 구성하였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 체계유형으로 구성하

3) 안보와 관련된 Q연구들 또한 있다. 대표적 연구로 Nitcavic과 Dowling(1990), Callahan, Dubnick과 Olshfski(2006), Koçak(2012), 길병욱·김창남(2009)을 들 수 있겠다.

4) Q 방법론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통계의 목표와는 달리, 인간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였는데, 첫 번째는 북핵 개발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남북문제의 결과로 보는 관점, 북한 체제상의 결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국제정세의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두 번째 체계는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접근법이다. 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지지하는 힘의 균형과 군사력을 중시하는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지지하는 협상과 타협 및 다자간 협력체를 중시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체계는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다. 즉 핵무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한편 Q 표본의 수에 대해서는 20~80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긍정, 부정, 중립의 진술문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김홍규, 1992: 6).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진술문 13개, 부정적 진술문 13개, 중립적 진술문 5개로 구성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핵무기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묶여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Q진술문을 구성하였다.

<표 2> Q진술문과 분석체계

분석체계		Q진술문	
북한 핵개발에 관한 인식	남북한 문제	1	남한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무능하다.
		2	북한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다.
		3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5	북한 핵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6	남한의 퍼주기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국제 정세	7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8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은 불리해진 군사력의 불균형을 채우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다.
		9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은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
		10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안보의 문제이다.
		11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북한 정권	12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할까 무섭다.
		13	북한 내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14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경제난국, 독재지속으로 인한 내부결집을 위한 목적이 외부의 위협요인보다 더 크다.
		15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유지를 위해 동북아 평화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16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북핵 문제에 해결에 관한 인식	현실 주의적 해결	17	남한도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18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
		19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할만한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0	한미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강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력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길들여야 한다.
	자유 주의적 해결	22	북한 문제는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23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24	4자회담 내지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5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시민사회, NGO)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협력력을 강화해야 한다.
		26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인식	27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했다.	
	28	북한 핵무기는 위험용이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29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30	북한의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	
	31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핵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P 샘플의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중요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수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김헌수·원유미, 2002: 62). 대상자 수는 평균적으로 30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Brown, 1980; Brown & Kil, 2002; 길병욱·김창남, 2009). Q 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이 표본이므로 P 샘플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특성을 비교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김홍규, 2008: 113). 한편 Q 방법론에서는 P 샘플이 커지면 한 요인(Q-factor)에 많은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김홍규, 1992: 7).

<표 3> P 샘플의 유형

직업별 구분	성별		연령대				총인원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	직업군인	4	0	0	2	2	0	4
2	통일부 및 외교부 공무원	2	1	0	2	1	0	3
3	외국계 기업직원, 자영업자	4	4	1	3	4	0	8
4	통일분야 정치학자 및 정책학자	3	0	0	0	3	0	3
5	일반직장인	2	4	2	2	1	1	6
6	학생	2	3	4	1	0	0	5
7	주부	0	4	0	1	1	2	4
8	무직자	2	2	0	0	0	4	4

※ 총 설문대상: 37명.

Q 방법론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톰슨의 스키마타(Thompson Schemata)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김홍규, 2008: 116). Thompson(1966: 72)은 관련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켜 주관적 의견을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김홍규, 2008: 115). 이러한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 (1)그 주제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special interest), (2)공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judge, dispassionate interest), (3)그 주제에 대한 권위자나 전문가(authorities, expert), (4)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class interest), (5)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uninformed, uninterested) 등이다(김홍규, 2008: 116).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는 Q 요인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사항일 뿐, 양적 접근에서와 같이 배경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김순은, 2010: 17).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직업군인, 외국계 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통일부와 외교부의 공무원을 포함하였고, 권위자나 전문가로 통일관련 연구를 한 정치학자와 정책학자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일반 직장인과 학생, 주부 등을 포함하였고,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무직자를 포함하여 총 37명의 P 샘플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의 P 샘플은 <표 3>과 같다.

### 3. Q분석의 시행

Q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PQMetho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림과 같이 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된 Q 진술문의 결과 값과 P 샘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활용하여 로테이션 이전의 요인가를 추출하였다. 이때 Eigen Value값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이상인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여 로테이션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 varimax방식의 로테이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flagging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적인 요인분석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4	-3	-2	-1	0	1	2	3	4

<그림 2> Q분류표

#### IV. 연구결과

##### 1. 유형의 구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총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설명력을 고려하여 5개의 요소로 로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총 설명력은 64%이며, 유형별로 1유형이 13%, 2유형이 18%, 제3유형은 9%, 제4유형은 10%, 제5유형은 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4> 요인분석표

변 수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유형	1	2	3	4	5
1	남	20대	3	0.0205	0.2264	-0.4159	0.0891	0.4860
2	남	30대	3	0.3846	-0.0424	-0.1387	-0.2379	0.6521
3	남	30대	3	-0.3175	0.8013	0.1376	0.1353	-0.0329
4	남	30대	3	0.1301	0.0527	-0.0842	0.6987	-0.1218
5	여	40대	3	-0.0372	0.0236	-0.7633	0.1485	0.3233
6	여	40대	3	-0.5125	0.7170	0.1517	-0.0062	-0.2140
7	남	20대	5	0.0683	0.5427	0.6705	-0.0036	0.0524
8	남	20대	5	-0.1540	0.2396	0.2644	0.7067	0.0965
9	여	30대	5	-0.0814	0.7688	0.1004	0.0532	-0.0921
10	여	30대	5	0.3081	-0.2026	-0.0074	0.4557	-0.1283
11	여	40대	5	0.2302	0.7245	0.0884	0.3726	0.0146
12	남	40대	4	0.0203	-0.0198	0.7554	0.3101	0.0996
13	여	40대	3	0.4065	-0.3060	0.3645	-0.0349	0.4459
14	여	40대	3	0.5357	0.1741	-0.1296	0.1407	0.4693
15	여	50대 이상	5	0.1175	0.7334	-0.0842	-0.2183	0.0215
16	남	50대 이상	8	-0.2363	0.6467	-0.0773	0.3131	-0.2844
17	남	50대 이상	8	0.0099	0.2783	0.0958	0.6241	0.0318
18	여	30대	7	0.1320	0.7117	-0.0864	0.4323	-0.2192
19	여	50대 이상	8	0.6151	0.3914	0.0472	0.1750	0.1773
20	여	50대 이상	8	0.4324	0.5673	-0.1735	0.1342	-0.2306
21	남	20대	6	0.3409	0.5554	0.0841	-0.2676	0.0805
22	여	20대	6	0.4102	0.1572	0.2834	0.4400	0.2968
23	여	20대	6	0.7142	0.0653	-0.0487	-0.0273	0.2778
24	여	20대	6	0.5199	-0.1620	0.0296	-0.1054	0.6900
25	여	40대	7	0.0965	0.6184	-0.3361	0.1343	0.0228
26	남	40대	4	0.4196	0.5579	0.1333	0.2631	0.0389
27	여	50대 이상	7	0.0383	-0.0732	0.0128	0.0325	0.8076
28	남	30대	6	0.2594	0.0433	0.7115	0.1841	0.4295
29	남	30대	2	0.4141	0.1428	-0.0476	0.5139	0.1209
30	남	30대	1	-0.0143	-0.0784	0.4335	0.4353	0.6731
31	남	30대	1	0.3981	0.4445	-0.0248	0.3811	0.4398
32	남	40대	1	0.1647	-0.0902	0.2255	0.4836	0.6129
33	남	40대	1	0.3860	0.4627	0.3552	0.1753	0.3942
34	여	50대 이상	7	0.3051	-0.1585	0.0020	-0.2744	0.6255
35	여	30대	2	0.3267	-0.4891	0.0640	-0.0606	0.6180
36	남	40대	4	0.7296	-0.1284	0.3080	0.1224	0.2330
37	남	40대	2	-0.7602	0.0392	-0.1556	-0.1662	-0.1413
설명력 (%)				13	18	9	10	14
				64 %				

\*: p<.05 ,

※ 직업유형: ①직업군인, ②통일부 및 외교부공무원, ③외국계 기업 직원 및 자영업자, ④통일분야 정치학자 및 정책학자, ⑤일반직장인, ⑥학생, ⑦주부, ⑧무직자

유형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표 5>)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요인 1과 요

인 5로 0.4954에 해당된다. 나머지 요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0.35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인 간 독립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유형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1	0.0348	0.2781	0.2349	0.4954
요인 2		1	0.1663	0.3451	-0.2436
요인 3			1	0.2369	0.1446
요인 4				1	0.0716
요인 5					1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5개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5개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문의 배열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 2. 유형 1: 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표 6> 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동의	번호	진술문
+4	26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25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시민사회, NGO)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	22	북한 문제는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3	15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유지를 위해 동북아 평화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3	8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은 불리해진 군사력의 불균형을 채우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다.
-3	29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3	3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17	남한도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21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력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길들여야 한다.
-4	6	남한의 퍼주기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실용주의적 외교협력중시형’이다. 이 유형이 강하게 동의하는 문장 중에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협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해결책(진술문 22, 25, 26번)이 많다. 또한 군사력이나 남한의 핵개발 등 현실주의적 해결책(진술문 17, 21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유형은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북핵 위협에 대해 강하게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종합적으로는 북핵문제를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소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 이유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힘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핵무기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민족주의적 입장, 또는 북한을 강하게 불신하는 통일 유보적 입장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유형은 국익을 중시하되 군사적 해결보다는 타국과의 외교 및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으로 볼 수 있다.

### 3. 유형 2: 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두 번째 유형은 ‘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으로 첫 번째 유형과 크게 대비된다. 이 유형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진술문 19번),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한다(진술문 23번).

<표 7> 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동의	번호	진술문
+4	19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할만한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4	12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할까 무섭다.
+3	27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했다.
+3	31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핵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3	30	북한의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
-3	7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3	16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3	4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4	28	북한 핵무기는 위협용이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4	23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핵무기를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핵 인식에 대한 진술문 5개 중 4개에 대해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진술문 27, 28, 30, 31번).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핵무기 자체의 위협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 및 적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표시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진술문 12번).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불신 및 적대감은 통일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진술문 4번).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북한에 대한 불신 및 적대감이 강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며, 북핵문제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으로 볼 수 있다.

#### 4. 유형 3: 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세 번째 유형은 ‘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이다. 이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크게 대비되지만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하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8> 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동의	번호	진술문
+4	31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핵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27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했다.
+3	26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4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3	16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3	8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은 불리해진 군사력의 불균형을 채우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다.
-3	11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3	9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은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
-4	6	남한의 퍼주기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4	7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이 유형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 문제 중 핵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북한 핵무기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진술문 27, 31번).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불신이나 적대감은 나타나지 않으며,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진술문 4번). 이러한 태도는 통일이 한국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북한 핵문제는 통일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유형은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수단 중에서도 미국 의존적인 형태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한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한다(진술문 26번). 이 유형은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한 이유가 구소련 붕괴나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며, 북한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진술문 7, 8, 9, 11, 16번).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남북통일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으로 볼 수 있다.

#### 5. 유형 4: 냉소적 군사안보 중시형

네 번째 유형은 ‘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이다. 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과 크게 대비되며,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유형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교보다는 군사적인 해결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과 대비된다. 이 유형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및 6자 회담 또는 북한 핵 포기 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강하게 반대한다(진술문 22, 23, 24번).

<표 9> 냉소적 군사안보 중시형

동의	번호	진술문
+4	10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안보의 문제이다.
+4	13	북한 내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3	20	한미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강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15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유지를 위해 동북아 평화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3	4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3	22	북한 문제는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3	24	4자회담 내지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1	남한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무능하다.
-4	23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4	17	남한도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유형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다르다. 이 유형은 핵 위협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를 우리나라에 대한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위협, 또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위협 등 세계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진술문 10, 15번).

이 유형은 또한 군사적 해결책 중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두 번째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이 유형은 남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7, 20번). 이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대립 형태로 보는 전통적 또는 냉전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해결을 중요시하고, 그 방법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으로 볼 수 있다.

## 6. 유형 5: 낙관적 현상유지형

마지막 유형은 ‘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앞서 살펴 본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과도 유사하지 않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가 위협용일 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아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진술문 28번).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낙관적이며 현상유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표 10> 낙관적 현상유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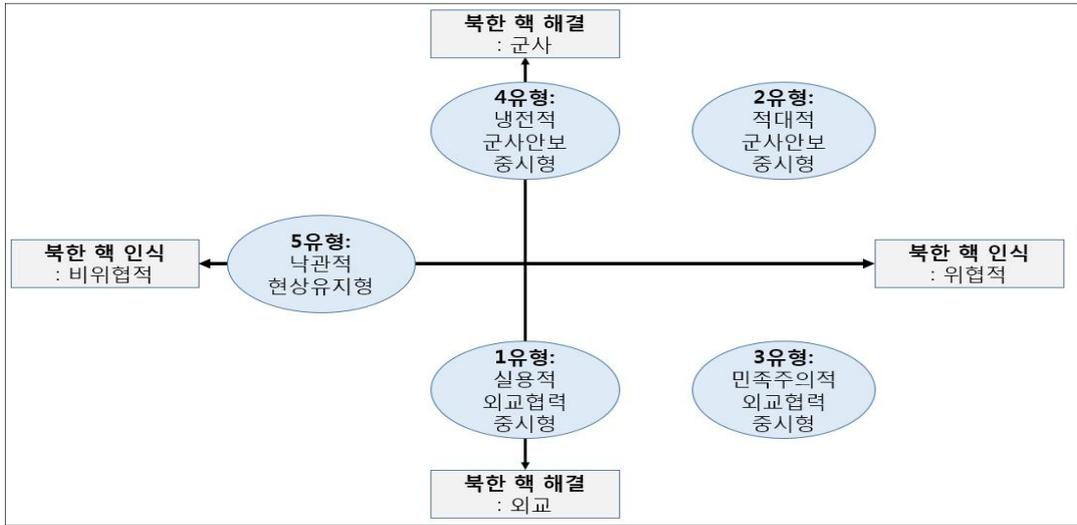
동의	번호	진술문
+4	25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시민사회, NGO)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26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24	4자회담 내지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28	북한 핵무기는 위협용이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3	19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할만한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3	16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3	18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
-3	17	남한도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12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할까 무섭다.
-4	6	남한의 퍼주기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하게 하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는 4자 및 6자회담 등 외교적 수단, 시민사회 및 NGO 등 민간 차원의 교류 등 외교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군사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강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진술문 19, 24, 25, 26번). 그러나 남한의 핵보유나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시 군사적 수단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강하게 반대한다(진술문 17, 18번). 이러한 비밀관적 태도는 북한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책에 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 또는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 때문에 북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이제까지의 유형분석을 정리하면 <그림 3> 및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총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구별되는 특성으로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며, 두 번째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2, 3이고,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5이다. 반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유형 1과 4는 극단값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관하여 유형 2와 4는 군사적 해결을 중시하는 데 비해, 유형 1과 3은 외교 및 교류협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반면 유형 5는 군사 및 외교적 해결 모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유형은 북한 핵위협에 관한 인식과 북핵 해결책에 대한 생각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인식유형 비교

나아가 <표 11>과 같이 각각 유형의 특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첫째, 유형 3과 유형 4는 통일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그 해결책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유형 2와 유형 1 또한 남한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그 해결책 또한 상반된다.

<표 11> 인식유형별 종합 정리

유형	특성
① 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외교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상대적으로 북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통일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음
② 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북핵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함 통일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음
③ 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외교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 북핵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함
④ 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상대적으로 북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
⑤ 낙관적 현상유지형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북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러한 차이의 이면에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북한 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북한에 적대적이라면 군사적 해결방안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외교적 해결방안을 지지한다. 반면 북한 핵위협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통일을 중시한다면 오히려 군사적 해결을 선호한다. 반대로 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유형은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점진적 외교협력을 중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인식유형 분석을 통해 주류의견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인식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5유형과 같은 낙관적 현상유지형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인식유형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셋째,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인식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시켜 나갈 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책효과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핵위협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강한 불안을 느끼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 때, 다양한 인식유형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위협이 실현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에 대하여 남한의 안보를 확고히 한 상태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확고한 군사안보를 확립한 바탕 위에 평화적 협력을 통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북한 핵위협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유환.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17(2): 57-86.
- 길병옥, 김창남. 2009. 새터민들의 주관성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 주관성 연구. 9(2): 17-41.
- 김경호. 2003. 한-미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통일전략. 3(1): 263-283.
- 김덕준. 2004. Q-방법론을 활용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2): 143-165.
- 김분한, 이경남, 이훈희. 2010. Q방법론의 미래에 대한 한국 Q학자들의 인식유형. 주관성 연구. 21: 19-34.
- 김성범. 2007.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정책-북한 핵 위협에 따른 대비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순은. 1999. Q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 김순은. 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금정.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연수. 2003.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7: 209-233.
- 김재천, 조용규. 2006.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미국의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국제정치논총*. 46(3): 169-188.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3. *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2013(11): 1-12.
- 김헌수·원유미. 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김홍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홍규, 김우룡. 1998. 텔레비전 뉴스 수용자의 유형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주관성 연구*. 3: 5-36.
- 뉴스한국. 2013. 50kt 핵폭탄 서울 용산 투하시 200만명 사망. 3. 15.
- 박영호. 201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차 핵실험 이후. *통일과 평화*. 5(1): 3-38.
- 박형중. 2006.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북핵 인식과 대북정책. *통일한국*. 2006(12): 31-34.
- 박휘락. 2013a.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방연구*. 56(1): 29-52.
- 박휘락. 2013b.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선제타격 대안 분석. *의정논총*. 8(1): 261-286.
- 왕선택. 2013. 북핵위기 20년 또는 60년. 서울: 선인.
- 양무진. 201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 연구. 통일부 연구보고서.
- 은종환, 이재완, 정광호, 오영민. 2014.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133-160.
- 이순모. 2013. 위협적 메시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보도의 Q방법론적 분석.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0(2): 223-236.
- 진성훈. 2012. 북한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28(2): 51-91.
- 조성렬. 2014.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9(2): 67-101.
- 중앙일보. 2013. 갤럽 미 국민 83%, 북핵 중대위협으로 인식. 2. 19.
- 한국갤럽. 2013.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Gallup Report 2013. 02. 20.
- 한국갤럽. 2014.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6호. 2014년 10월 5주(28~30일).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New Haven: Yale Univ. Press.
- Brown, S. R. 1993.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3/4): 91-138.
- Brown, S. R. and B. O. Kil. 2002. Exploring Korean Values. *Asia Pacific: Perspectives*. 2(1): 1-8.
- Callahan, K., M. J. Dubnick, and D. Olshfski. 2006. War Narratives: Framing Our Understanding of the War on Terr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4): 554-568.

- Koçak, M. 2012. Threat Assessment of Terrorist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Journal of Risk Research*. 15(1): 85-105.
- Morgenthau, H. J. 1985.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Mcgraw-Hill.
- Nitcavic, R. G., and R. E. Dowling. 1990. American Perceptions of Terrorism: A Q Methodological Analysis of Types.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7: 147-166.
- Stephenson, W. 1935.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pson, G. C. 1966.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erelson, B., & Janowitz, M.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

**은종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난 및 안전, 갈등관리, 부패방지정책이다(zert94@naver.com).

**이시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외교안보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 주요 관심분야로 두고 있다(mapro@snu.ac.kr).

**박은형:**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미국 고위공직자 인준지연에 관한 연구, 2015년 2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Plus 사업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책과정론, 정책분석 및 평가, 조직인사론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논문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의 범죄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4)”,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 표결행태분석(2014)”, “범죄예방정책으로서 방범용 CCTV 효과성에 관한 연구-패널2SLS를 활용한 분석(2014)” 등이 있다(vitaly27@snu.ac.kr).

